

한국사길잡이 과제

컴퓨터공학과 20191754 손승현

다큐멘터리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 80년 5월 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를 본 나의 감상

KBS 특선 다큐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2003년 5월 방송

스페셜다큐멘터리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의 기자인 힌츠페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5.18민주화 운동 당시 힌츠페터는 독일 공영 방송국의 기자 소속으로 일본에서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묘한 일’이 생겼다고 하여 그는 즉시 서울로 떠났고 그리고 그 ‘기묘한 일’의 근원지인 광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광주에서 본 광경은 그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참혹’하였다고 한다. 길에선 총성이 울려 퍼지며, 그 총성은 광주의 젊은이들을 향하였고, 그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그 광경을 본 힌츠페터는 카메라를 들어 이 참혹한 현장을 담았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 공개된다.

이러한 일이 어째서 일어났을까,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신군부라 불리우는 전두환과 하나회가 있었고 그들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열을 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에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는 광주에 계엄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참사는 시작된다. 이러한 계엄군들은 모두 중무장상태였으며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시민들을 일명 “폭도”라고 칭하며 학살을 일삼았고, 일반 시민들조차 안전하지 못하였다. 폭력, 살인, 강간등이 그들에겐 일상시 되었다.

나는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한 가지의 의문을 품었다. 과연 계엄군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끔찍한 일을 행하였을까? 필자도 군대에 복무한 입장으로서는 어느정도 이해는 되었다. “까라면 까라”라는것이 군대식이니까. 하지만 하면 안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3살배기 아이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찾아본 결과 계엄군에게 명령을 내릴때 “빨갱이 숙청작업”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계엄군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다고 신군부는 생각한 것이다. 허나 이후 그 참사에 행해졌던 계엄군들의 인터뷰는 각종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들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그 계엄군의 시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

영화 “택시운전사”에 명장면이 있다. 서울택시인 주인공 택시가 위병소를 지나갈 때 계엄군에 의해서 검문을 당하였다. 이에 계엄군은 수색을 진행하였는데 계엄군은 주인공 택시가 서울 택시인것을 확인하였지만 계엄군도 한번 눈감아주며 택시를 보내주는 장면이다. 이에 나는 의문을 품었다. “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건가?” 그리고 “나비효과”라는 말이 떠올랐다. 영화에서 그 계엄군이 위병소를 통과시켜주어 5.18 민주화에 관한 사실들이 성공적으로 기사화되었다. 그 계엄군이 아니었다면 광주시민들 이외에 아무도 몰랐던 사실일 것이다. 그 계엄군의 작은 날개짓 한 번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또한 상관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군복무신조”에도 나와있다. 단,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법규를 준수하는 선에서 상관에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계엄군은 작은 날개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나의 생각이 든다.



이 다큐멘터리는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독일인 선교사(이하 선교사)가 구한말 조선에 방문하여 촬영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무성영화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당시에 있었던 문화상을 문서가 아닌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구한말의 조선을 확인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위의 다큐멘터리(이하 영화)에서의 조선은 선교사가 칭한 영화의 제목처럼 정말 '고요한'나라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존에 지켜져 왔던 전통을 따르며, 큰 일 없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조선의 일상을 담고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모습의 조선은 사실 앓고있다. 일제라는 병에 말이다. 영화의 시대로는 1925년 한창 일제 치하에 있을 때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일본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박탈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실행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완전무장해제까지 하며 군권도 박탈하였으며 헌병경찰제를 만들어 한국인 무단탄압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약탈과 식민지착취를 시작하였으며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또한 개편하였다. 그리고 3.1운동 또한 진행하였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허나 살짝은 변화한. 시장에서는 일본제 품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일본말을 하였고, 민중들은 항상 가난하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이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무성영화라는 것에 감사하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더욱 참혹하게, 조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어를 사용하며 잊혀지는 한국말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감상해야했으니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조국을 지워버리는 장면또한 고통스럽게 보았다. 자신들은 그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 임무가 더더욱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며, 자신들의 조국을 지워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체 그저 묵묵히 '고요하게' 행할 뿐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해의 뿌리가 되어버렸으니 말이다.